

# 국가 우주산업 전초기지·우주경제 강국 실현 기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의미·전망  
앵커기업 유치·전문 인력·인프라 구축 속도  
내년부터 관련 사업 본격화 국비 확보 주력

고흥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면서 우주산업 전초기지가 자 국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의 전남도의 역할과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육성과 인력, 인프라 구축 등 기반을 조성,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기틀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혁신 우주산업 기반 조성 성과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은 전남도가 국내 유일 우주발사체인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벌인 노력의 결실이자 꽤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1조6천84억원(국비 1조3천409억원, 지방비 1천303억원, 민

자 1천372억원)을 투입해 우주특화산단을 조성하고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우주발사체 특화산단 조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발사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로 앵커기업 10개 사 이상, 고용인력 3천명 창출이 목표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등에 반영돼 지난 7월 국토부 산단 지정계획을 거쳐 과기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 등으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우주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한화에너지와 우주산업 협력을 맺어 본격적인 민간 우주시대를 이끄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발사체 특화산단 등 인프라 조성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우주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인프라 등이 육성된다.

전남도는 주요 핵심 사업으로 발사체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특화 국가산단 조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고체발사 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총사업비 3천800억원을 투입해 5

2만평 규모의 발사체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해 우주발사체 조립 및 부품 제조 관련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 우주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을 통해 세계우주과학역사관, 우주선

공간 체험 등 우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체험공간 구축과 우주 문화관광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비 확보 등 향후 과제 대응 총력  
대부분의 관련 사업비가 국비로 설정

돼 있는 만큼 향후 국비 확보 여부가 전남도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에타사업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기부 에타사업과 연계한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한다.

내년 1월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 에타를 통과하면 국가산단으로 최종 선정된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에타에 이어 2024년 실시계획을 거쳐 2026년 착공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대형 위성·달 탐사선 발사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11월 에타(2조132억4천만원)를 통과했다.

나로우주센터에 대한 제한적 민간인 개방도 추진하는 한편, 광주-고흥(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5조8천569억원)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핵심 인프라 구축과 발사체 앵커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국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상수도본부-전남대 AI 기반 재난대응 '맞손'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 재난 실시간 감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전남대학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재난 정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수장 수질사고 등 상수도 시설물 재난에 대한 실시간 감시에 나선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전남대는 22일 상수도 시설물의 재난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반 환경시설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실증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시설 재난피해 실시간 감시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은 환경부(전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물 인터넷(IoT) 센서 기반을 통해 환경시설, 특히 정수시설의 실시간 재난현장 감시 및 재난정보 통합 관리 실증화로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과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해 체계적이고 효

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관리한다. 이 기술은 정수장에 유충이 유입되면 실시간 유충감지 센서가 작동하고, 인공지능 기반 양방향 의사소통모델을 통해 재난대응 명령을 현장 담당자에게 전달해 현장대응 후 완료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상수도 시설물에 이상 징후 발생 시 실시간 감시와 의사결정을 지원 받고, 대응이 가능하게 돼 재난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에는 정부지원금 30억원에 민간부담금 6억3천만원(총 36억3천만원)이 투입되며 전남대, 국민대, ㈜피에스글로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솔트룩스, ㈜레오테크, 서울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관·업체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내년 말까지 AI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기부체납을 받아 재난대응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 순천만국가정원, '2022 한국관광의 별' 본상

국가정원 1호...연간 500만명 찾는 매력적 관광지 우뚝

순천만국가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2 한국관광의 별'에서 최고의 영예인 본상을 수상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2회째를 맞은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해 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 또는 단체(인물)를 선정해 수여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국내 관광자원의 매력도와 기여도를 고려

해 본상 4개, 특별상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이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됐고 2015년 9월 5일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됐다.

영국 BBC방송이 극찬한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스의 작품인 순천 호수정원이 있는 테마정원, 13개 나라의 세

계정원, 16가지 테마정원, 32개 참여정원 등 다양한 정원이 있다.

연간 500만명 이상이 찾는 누구나 한번 꼭 가고싶은 매력적인 관광지인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멀리서만 바라보던 정원을 생활 속으로 끌어와 정원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수목원, 습지센터, 세계정원 구역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린다.

2010년부터 추진된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전남 관광지는 신안 퍼플섬, 담양 음식테마거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장흥 정남진 편백수 우드랜드 등 15개소다.

박용화 관광과장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의 대표 메가 이벤트 행사로 선정됐다"며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시민 주도 에너지전환 활동 성과 공유

'광주 에너지전환의 날' 행사 성료

광주시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광주 에너지전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재)국제기후환경

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한 2022년 에너지전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에너지전환을 준비하는 마을공동체와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박해린 이노마드 대표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강

연에 이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에너지파크 운영 성과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및 기후위기를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광주이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동력은 시민의 자발

적인 참여"라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매일신문은 휴대폰으로 본다. 시·읍·면·동별 서비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

